

“아동 목소리 귀 기울인다” 나주시, 아동과 정책간담회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아동대표 정책제안 간담회 아동총회 전남지역대회서 채택된 아동 정책 안전 의견 청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나주시는 지난 26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본부장 유혜영)와 ‘아동대표 정책제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정책간담회는 지난 달 2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남지역대회’에서 채택된 아동 정책 안전에 대한 지역 아동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조’에 명시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 스스로가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적 문제·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행사로 나주시 아동 4명이 대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동총회에 참석한 아동대표 3명을 비롯해 강영구 부시장, 김동관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아동들은 ‘보행 안전을 위한 학교 통학로 개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조치 강화’,

‘미래 직업체험 및 이론수업 확대’, ‘아동 의견 반영을 위한 정치참여 기회 제공’, ‘아동 권리 관련 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

강영구 나주시장은 “아동들이 제안해준 정책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우리 시 아동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아동이 소외받지 않고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나주시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는 지난 해 7월 ‘아동권리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발굴지원과 아동권리교육 홍보·모집 등 아동친화적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들



봄센터를 대상으로 한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광주·전남 최초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국제어린이마라톤 등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나주=송준표기자

담양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창평면 담빛 팜월드 조성사업’ 투자협약 체결

정원 속 예술과 놀이와 쉬이 있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

담양군에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인 ‘창평면 담빛 팜월드’가 들어선다.

담양군은 죽향산업(주)(회장 한정수)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위해 복합관광휴양단지 ‘창평면 담빛 팜월드’ 조성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죽향산업(주)는 현 죽향CC가 위치한 창평면 광덕리 일원에 총 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95.657㎡ 부지에 루지, 썰라인, 숙박시설 등

복합관광휴양단지를 조성 준비 중이다.

이번 담빛 팜월드 조성으로 담양군에 다소 부족했던 활동성 있는 체험시설에 테마가 있는 조경과 농장 그리고 숙박시설을 포함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군을 대표하는 새로운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주변 관광자원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행정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명품’ 장성군 농특산물 추석명절 선물로 각광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장성군의 고품질 농특산물이 추석 선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군은 한가위를 맞아 군의 대표 농특산물, 가공식품을 선별해 추석선물 기획전을 마련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품목은 장성의 대표 과일인 ‘사과’다. 사과 재배지의 최남단에 위치한 장성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다. ‘새싹사과’도 추석 선물로 알맞다. 체질을 고려하거나 복용시간을 따질 일 없이 샐러드 등으로 편안하게 섭취하면 된다.

조금 색다른 선물을 하고 싶다면 ‘구아바나 새송이버섯’을 추천한다. 아열대작물인 구아바 열매를 이용해 만든 구아바젤과 유기농 구아바잎 차는 특유의 달콤한 맛과 향긋한 내음을 지녔다. 또, 자연산 송이버섯과 식미가 비슷한 새송이버섯은 비타민C를 비롯해 필수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장성=김수권기자



구례군, 심 없이 뛰 전지훈련 유치활동 ‘효과 톡톡’

남도 전지훈련의 메카, 구례에서는 오늘도 훈련으로 굼은 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6월, 구례군은 전지훈련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산업과 스포츠마케팅 팀장과 체육회가 영암군민속씨름단을 이끄는 김기태 감독을 방문, 간담을 통해 구례군으로 전지훈련을 와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 감독은 8월 중순에 구례군을 방문하기로 약속하며,

현재 열린 훈련 중에 있다.

아울러 8월 현재, 구례군에서 하계 전지훈련 중인 팀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을 포함하여 23팀 220명으로 집계되었다. 13팀 128명이었던 지난 동계 전지훈련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성과이다. 전지훈련 차 방문한 씨름팀만으로도 2억원에 가까운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HACCP 인증 획득 지원

맞춤형 현장 컨설팅, 위생·안전시설 개선...농가 경쟁력 ‘업’

화순군의 농산물 가공사업 농가의 HACCP 인증 획득 지원 활동이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26일 능주면 소재 힐링푸드농업회사법인을 방문, HACCP 인증 획득을 위한 위생교육과 유통관리 대책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식품가공전문위원은 HACCP 인증 후 중점 관리 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유통시장

확대와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판로 확보에 힘을 쓸 것을 당부했다.

군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과 위생·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병행, 농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맞춤형 컨설팅과 위생·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HACCP 인증 획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과 농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아동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실시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5차시에 걸쳐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서는 컬러 드로잉복과 마음 일기장을 활용해 대상자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줬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 활동을 통해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협동 정신을 일깨우기도 했다.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질병의 치료와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자존감 및 대인 관계 향상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자신을 소개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집단원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들은 함께 물놀이 체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위생 키트를 제공해 개인 청결 및 위생 관리



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는 시간도 가졌다.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면 고차원적인 사회적 기능 외에도 식사, 청결, 외모 관리와 같은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기능마저도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성장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 건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널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